

한살림농부이야기

2020년  5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식지 27호

발행인 이백연 편집인 곽현용
편집부 한혁준 김진주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2, 3층
문의 043.716.0508
홈페이지 farm.hansalim.or.kr
이메일 farm@hansalim.or.kr
페이스북 facebook.com/hansalimfarmers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별별농부장터 내부'



유기농카페 '봄날'



한살림유기농마케팅센터매장

농업살림운동 기반확대를 위한 실험과 도전

한살림 생산조직 청주시대를 열다

2020년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대전에서 청주로 사무처를 이전하여 청주시대를 열었다. 청주시대 실험과 도전의 핵심은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에 있다. 3층 건물, 약 900평에 1층은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별별농부장터'와 한살림청주매장, 2층에는 건강한 밥상, 행복한 식당이라는 개념으로 운영하는 '한우밥상 느티나무', 편안하고 쉽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 유기농카페 '봄날', '어린이 키즈카페', 3층은 생산자연합회 사무처와 별별농부장터 사무실이 운영되는 복합건물이다.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또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계가 잘 마련되고 작동되기를 기대한다. 농업살림 운동의 확산을 위한 한살림 생산자조직의 실험과 도전은 계속된다.

한살림을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과 활동을 펼친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청주시대 의미와 과제

청주로의 생산자연합회 사무처 이전의 배경과 경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2019년 총회에서 농업살림센터 건립을 결의하고 그 해 5월 농업살림센터 추진위원회를 열어 대전, 청주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평 300여평 규모의 농업살림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공간에 담을 내용으로는 사무실, 교육실, 회의공간과 가공식품연구소를 기본 내용으로 하여 여건에 맞는 기타 부대 시설(식당, 카페, 매장 등)을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청주지역에서 한살림 농업살림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물색 과정에서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의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려는 계획을 확인하고 농업살림센터 건립을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해 우리가 구상하는 농업살림센터 운영을 위한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강서복합매장과 브런치카페(팜앤키친) 운영주체인 농업회사법인 CS(유한회사)와 한살림청주생협,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의 미호천영농조합법인 세 주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3:1의 입찰 경쟁을 통해 2020년 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 CS를 농업회사법인 청주농업살림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의 사업 총괄 법인으로 하여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이에 맞추어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3층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지난 3월 20일 이사를 와서 마케팅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 지원체계를 갖추며 동시에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청주시대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의 의미

한살림은 지난 30년동안 사업과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에 기반한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친환경 농업의 토대를 넓히고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먹을거리의 공공성과 로컬푸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푸드플랜 체계는 한살림이 그간 추구해온 활동들의 사회적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한살림이 규모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관계성이 매장 중심의 물품공급 체계로 한정 되었고 생산자들은 안성물류센터로만 관계의 초점이 모아지는 경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살림생산자들은 자기 지역에 사는 다른 농민들, 시민과 아이들과의 관계, 그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식을 어느 순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살림 내의 생산 출하체계 내부로만 안주하고 그 관계 속으로 스스로를 가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변화된 시장 상황과 국가정책에 대응하고 한살림운동을 한살림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업과 활동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이 현재 한살림 앞에 놓인 주요 과제라고 판단하고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위탁운영을 그 시범 모델의 하나로서 기획하였습니다.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한살림의 핵심가치에 기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이라는 방식을 통해 전개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협동의 구체적인 공간은 지역입니다. 생산·소비 협동 운동을 단순히 한살림 내의

물품의 생산·출하와 소비 차원을 넘어 지역의 시민과 농민들이 함께하는 지역살림운동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살림청주소비자생협과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의 협동을 중심으로 하고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협력 지원하는 구조로 생산·소비 협동의 체계를 마련하고 청주 지역살림운동의 새로운 모델로서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직매장(별별장터)과 친환경로컬식당, 친환경카페로 구성된 친환경로컬매장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는 규모를 갖추고 진행되는 전국 최초의 친환경로컬매장입니다. 전국에 1200여개의 로컬매장을 개설하려는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응해서 기왕이면 한살림의 가치가 잘 녹아 있는 로컬매장의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로, 청주지역의 친환경 농민들과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물품을 나누고 교류하는 장터입니다. 지역의 소농들이 시민들과 교류하고 마을의 할머니들이 뜬은 봄나물들이 인증이라는 제도를 넘어 이야기가 되고, 얼굴이 있는 장터입니다. 청주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그들의 물품을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 하는 공간이고, 반찬코너는 지역 어르신들의 손맛이 전해지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야외 장터는 청주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소통하고 문화와 놀이, 나눔과 봉사 그리고 휴식이 있는 힐링의 장입니다. 이렇게 친환경로컬매장은 한살림을 넘어 한살림의 오래된 꿈이 실현되는 장터입니다.

센터 1층의 별도 공간에 한살림청주생협매장이 운영됩니다. 이는 기존 한살림매장과는 다른 창고형 거점 매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비시장이 온라인 주문 배달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대응하여 당일 주문 배송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청주한살림의 8개 매장에 대해 1일 2배송 시스템을 갖춰서 매장의 결품을 줄이고 소비 확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를 실현할 한살림의 전산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지만 전산이 개발되는 대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한살림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변화와 실험, 그 성공을 위해서...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실험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전체가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누군가가 변화의 물고기를 트고 새로운 실험을 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을 청주에서 한살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힘을 모아 시작했습니다. 민간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유기농로컬매장, 당일 직배송을 위한 거점 매장,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현실에 안주 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전체 생산자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소비자들과의 협동을 통해 완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광현용 사무처장

"별별 농부들"의 '별별 이야기'가 있는 유기농마케팅센터 개장



야외 장터 '달장'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한 유기농마케팅센터가 4월 24일 개장하였다. 유기농마케팅센터는 한살림컨소시엄이 운영을 맡아 친환경농축산물직거래매장인 '별별 농부장터'를 운영한다. 또 한살림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매장과 한우밥상 '느티나무', 친환경 카페 '봄날',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인 키즈존 등도 마련되어있다. 앞마당에는 2만여평의 공원과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어, 친환경농산물 장보기는 물론 아이들과 함께하는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복합공간이다.

1층에 자리잡은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인 '별별농부장터'는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부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살림은 유기농마케팅센터의 위탁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생소하나운동을 청주지역에서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 청주지역의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귀농인

및 소농, 고령생산자들이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별농부장터는 그 동안 친환경농업을 하고 싶어도 판로가 여의치 않았던 농민들에게 판로를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농사를 짓더라도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쓰고자 한다. 소비자는 아침에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비용이 빠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5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야외장터를 운영하였다. 농부들의 이야기와 문화가 있는 장터를 통해 시민들을 친근하게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야외장터의 이름은 '달장'으로 달의 시간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달장'에서는 요리가 있는 장터를 컨셉으로 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다양한 요리코너가 운영되었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살림컨소시엄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미호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청주농업살림유한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입주해 있는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2층에 식당과 카페가 문을 엽니다.



한살림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1층은 로컬푸드직매장과 한살림청주매장은 지난 4월 24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층의 유기농카페 '봄날'은 5월1일, 생산자직영식당 '한우밥상 느티나무'는 5월 12일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직영식당 '한우밥상 느티나무'는 한축회와 한축식품이 합작하여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지역의 축산물 직거래식당으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대와 다양한 신제품 개발, 외부유통 판로를 모색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의지가 담긴 직영식당입니다.

'한우밥상 느티나무'는 'Non-GMO 한살림한우와 청주유기농 짬깨 소가 어우러진 건강한 밥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안하게 건강한 밥상을 나누는 행복한 식당!'을 모토로 하여 느티나무 이름처럼 넉넉하고 편안한 밥상을 나눌 것입니다.

느티나무 식당과 함께 운영하는 2층 '유기농카페 봄날'은 공정무역 커피음료와 함께 한살림의 유기농재료를 사용하는 편안한 쉼터입니다. 생동하는 봄날처럼 모두가 편안하게 소통하고 쉬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5월 1일 오픈했습니다.



건강한 밥상, 행복한 식당 '한우밥상 느티나무'



따뜻하고 편안함, 쉼과 이야기공간 '유기농 카페 봄날'

한살림 생산자자가 퇴비 만들기

I 발효생성 목질퇴비

전남 곡성공동체 대표 이옥신

이옥신 공동체 대표는 한살림생산자연합회에 2018년도 8월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한살림생산자로서는 새내기이지만, 유기농에 대한 공부는 3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1986년도에 친환경을 시작했지만, 초기 5년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정농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일본의 미생물을 활용한 퇴비 만드는 곳을 10여 차례 방문을 하고, 지금은 광록퇴비라는 퇴비사를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본인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옥신 대표와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의 생산자연합회 생산지원부 주영달 차장 043-716-0508

1. 내 땅의 지력을 확인하라

- 시비처방서를 통해 지력을 확인하자.
- 시비처방서에는 토양의 이화학적 분석하고 비료와 퇴비를 어느 정도 넣어주어야 한다는 정보가 있다. 시비처방서는 관행농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활용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는 식물성 유기질비료와 동물성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식물성유기질비료는 채종유박, 대두박 등이 있으며 동물성 유기질비료에는 어분, 골분 등이 있다. 시비처방서에는 퇴비는 단순히 벧짚, 우분, 돈분, 계분을 골라서 필지의 유기물을 높이는 방식만을 보여주고 있다.
- 토양 유기물(부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숙된 축분 이외에 잘 발효된 퇴비(벧짚, 수피, 톱밥 등)를 넣어 주어야 한다.
- 토양 유기물(부식)은 퇴비와 같은 유기물질이 토양 속에 들어가 각종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거친 뒤에 남은 유기물과 회분 그리고 미생물의 사체(단백질)가 합쳐진 복합체이다.
- 토양 유기물(부식)의 역할



- 퇴비는 미생물의 먹이(유기질)가 될 뿐만 아니라, 서식처인 집(부식)의 역할도 해주며, 토양의 통기성, 보비성, 배수성 등의 물리성을 좋게 하여 토양 개량 및 땅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퇴비는 땅속에서 분해가 더디게 해야 좋다.

2. 발효 생성 목질 퇴비 구성 요소 및 가격대

광록 퇴비 기준

- ① 수피 70% _ 펄프회사에서 수피를 주문할 수 있다. 1루베(가로 1m* 세로 1m*높이 1m)에 2만 5천 원 정도 된다.
- ② 계분 17%_(육계 계분이 효과적임. 왕겨를 깔아 수분함량이 일반 관행 산란계보다 적다.)



계분(육계 계분을 모아놓은 것)

- 우분보다는 계분이 효과가 좋다. 현재 우분은 곡물 중심으로 사료를 먹고 있어서 과거와는 효과가 다르다. 계분은 N,P,K가 우수하고 발효를 잘하여 쓰면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③ 쌀겨 3%

④ 미생물(세계효소사제품_일본제품) 1%

3. 목질 퇴비의 장단점

- 예부터 우드칩(목재류)은 퇴비나 비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상식이 있었다. 이는 목재에 리그닌, 셀룰로오스 등이 많아 분해가 어렵고, 목재에 탄닌산, 텔빈산, 수지 등은 농작물의 생육 장애 물질로, 뿌리의 발근 신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호기성 발효미생물에 의한 지속적인 고온 발효와 방선균과 섬유 분해균 등이 독성물질을 분해하여, 우드칩의 좋은 장점들이 드러나게 된다.
- 목재류는 다른 퇴비 재료에 비해 리그닌 함유량이 높다. 벧짚 퇴비의 토양 유기물(부식=휴믹스) 생성량은 약 10%라고 알려져 있는데, 목재류에 함유된 리그닌량은 그의 2-4배나 많아 토양 유기물(부식=휴믹스)의 생성률이 20-40%에 이른다.

4. 퇴비 재료별 부식(=토양 유기물) 비율

재료	퇴적시	완전부식시(%)
벧짚	100	10.8
왕겨	100	12.8
보릿짚	100	13.2
유채대·채종대	100	15.4
청초·낙엽	100	15.8
갈대	100	20.0
톱밥	100	48.5

- 톱밥(목재류)의 부식 함량이 벧짚의 4배 정도 됨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목재에 리그닌이라는 난분해성 분자 화합물이 부식의 주요한 물질로 작용하고 있다. 짚이나 다른 퇴구비는 땅속에서 6개월 이내에 분해가 되어 소실되나, 리그닌이 많은 톱밥 퇴비는 벧짚보다 4배 이상 길게 퇴비 효과를 볼 수 있다.

5. 유박 대신에 퇴비를 사용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들

“우리는 계분이나 유박을 밭에 주면 유기질 비료를 주었으니 토양 유기물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계분이나 유박에는 리그닌이 없다. 따라서 그것들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토양에 토양 유기물이 단 1g도 생기지 않는다.” (홍농종묘(주) <최신 원예> 76, 5월호)
 “유기질비료(유박, 미강, 어분)는 탄질률이 10 이하로 낮기 때문에 분해가 빨라 토양 속에서 3개월만 되어도 대부분 남지 않아 토양 유기물 생성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또 유박, 미강, 어분 등 유기질 비료와 퇴

비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유기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양은 척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퇴비의 경우이고 유기질비료를 계속 사용하면 토양이 척박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일본 자연농법국제연구개발센터, <보카시 제조방법> 중에서)

이옥신 생산자는 자가로 퇴비를 만들어서 100여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다. 현재는 주문을 해도 주문이 밀려 있어서,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함.

또한 한살림공동체에서 퇴비사를 직접 만들어 퇴비를 자가제조하여 땅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 발효 생성 목질 퇴비를 만드는 방법

1) 수피를 쌓아서 물을 충분히 준다



수피 I

- 70% 정도 물을 주어야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물을 주고, 얇은 목재를 펜치로 눌러 물이 나오면 됨.

2) 수피를 바닥에 깬다.



수피 II

- 그 위에 계분, 쌀겨, 미생물을 넣고 잘 섞어야 한다(로터리를 잘 쳐야 한다.)

3) 잘 섞은 퇴비를 퇴비장에 넣는다.

퇴비장은 반드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설치하여 퇴비를 제조해야 한다.

시설규격은 높이 2m, 폭 3m, 길이 8m이고 시설 자재는 시멘트 블록으로 사용하면 양벽의 공기 순환 구멍이 있어야 하며, 칸과 칸 사이에 30cm 간격을 두어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



퇴비장 시설

수분함량은 60~65%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퇴적 시 압착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살림 참여인증 필지점검사례 - 옥천공동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 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시인 향수의 마을 옥천에서 한살림으로 물품을 공급하던 생산자들이 2006년 옥천생산자모임을 만들면서 충북남부지역에서 한살림운동이 태동하였다.

초기 재래닭(토종) 유정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한살림포도와 복숭아 주산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옥천공동체는 총 14회원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복숭아를 생산하는 4농가가 한살림 참여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한살림 자주인증을 통해 복숭아를 생산, 공급해 왔던 경험을 살려 자연스럽게 참여하였다.



2020년 4월 10일, 복숭아작목반의 1차 필지점검을 진행하였다. 4월 5일 새벽, 전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옥천지역도 기온(오전 6시)이 영하 3℃까지 떨어졌다. 수년째 봄철 개화기 이상기온으로 인해 복숭아꽃 냉해가 반복되면서 회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막상 상황이 닥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겨울이 따뜻해서 복숭아꽃이 일주일 정도 일찍 핀 것도 피해를 키우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을숙, 서호덕 회원의 과수원에서 만난 회원들의 얼굴에 반가움과 걱정이 엇갈린다. 충북남부권역의 사무국이 있는 옥천 읍내에서 동남쪽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을숙 회원의 과원 일부는 냉해가 50%에 달할 정도로 컸다.

복숭아꽃은 영하 1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저온 피해를 입게 된다. 수정단계에서 냉해를 입을 꽃을 세로로 잘라보면 씨방이 텅 비어 있고, 속이 검게 변해 있다. 배주(암꽃술)가 죽어 빈 껍질만 남아 있는 꽃은 방법이 없다. 씨방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꽃은 미숙과나 기형과로 자라거나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나마 수술이 죽고 암술이 살아있는 복숭아꽃은 인공수분을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정용 꽃가루를 구해서 2~3회 나눠 뿌려서 늦게 핀 꽃까지 최대한 결실을 맺게 하자고 서로를 다독였다.

김용범 회원은 장찬리에 신규 필지를 마련하였다. 일반 재배를 하던 필지라서 1년 정도의 전환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는데 모두 동의하였다. 또한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올해

생산되는 복숭아는 시중 출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향후 한살림 참여인증 필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계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도랑을 만들어 용수 유입을 차단한다거나 부직포나 차단막을 이용하여 필지 안전성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김용범 회원에게 요청하였다.

충북남부권역협의회 대표이기도 한 김재식 회원의 천도복숭아도 일부 냉해를 입었다. 천도복숭아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품종이라서 신규 생산자를 늘여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동체 필지점검을 하면 대표와 사무국 실무자가 돌아보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회원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의 필지를 둘러보며 농사 기술을 나누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다.

김재식 회원이 복숭아와 관련된 대내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품종이나 재배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유할 뿐만 아니라 퇴비와 자재의 공시 관련한 자료도 카톡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상시적으로 안내해 온 노력들이 한살림 옥천 복숭아의 명성을 키워온 동력이 되었다.

점검을 마친 후 종합 평가에서는 필지 내 쓰레기(비닐, 플라스틱 등)를 방치하지 말고 잘 처리하여 필지를 청결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수원 내의 복숭아 봉지나 나뭇가지 등은 소각하지 않도록 하였다.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살림 참여인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생산자 자주점검원으로 김용범 회원을 추천하였다. 이번 필지점검 보고서는 정재호 회원이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여인증을 진행하면서 방재 및 출하 등 중요한 결정은 작목반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살림 농사나 활동이나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된다. 또한 사업연합은 소비자의 요구와 농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정책과 기준을 보완하고, 생산은 생산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여인증 1차 필지점검에 대한 소감을 묻자, 김재식 회원은 ‘참여인증은 생산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0년 3차 이사회 회의

4월 16일(수) 생산자연합회 회의실에서 29명 참석으로 3차 이사회 회의를 『화상 회의』로 진행함.
2월 29일 현재, 회원이 2,209 가구임.

주요 활동 보고 내용

- 주요회의 및 업무보고** 4월 사무국장단 및 회장단 회의 결과를 보고함.
- 각 부문 별 보고**
- 생산지원부문에서 동해방지 긴급 보온조치 결과, 메벼 품종 기준 변경 내용을 보고함.
 - 정책기획부문에서 겨울생명학교 개최 현황, 2020년 지역한살림 농업살림상 시상현황, 경북지역 권역대표 및 사무처장 간담회, 유기농마케팅센터 준비상황을 보고함.
 - 교육홍보부문에서 소식지 26호 발행, 2020년 사무국장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보고함.
- 한살림연합 / 사업연합 주요보고**
- 코로나 19사태 이후 한살림의 대응방안 모색, 코로나 19 후원금 현황, 기후위기 대응계획, 1/4분기 한살림 이용고 전년비 22%성장, 농산물 전처리센터 추진회의 가동,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꾸러미 시범사업, 친환경 피해농가 지원 기획 전 참여내용을 보고함.

주요 안건 논의 사항

제1호 안건 회원가입 승인의 건

제안 내용 아래 24세대의 가입을 요청함.

[부여연합회] 신암공동체 김성덕(김명숙), 안무신(강홍숙), 강성우(박종임) 진호공동체 황기하(임화숙) 참벗공동체 이홍규(정진영) 산별공동체 김도경(김희정)

[전북연합회] 우리공동체 양기만(박복순), 윤여중(장옥연), 양기석, 이민수, 채창혁 춘향골공동체 김갑식(손경희), 김영국(김옥희), 남궁당(양경자), 서동모(박정순), 김영남(소순팔), 우동명(박복주), 윤희중(임복희), 장복순, 한도희(원세영) 한밭음공동체 양재영(국중순) 구량천공동체 정태성(전설희)

[전남연합회] 대숲공동체 신현호, 이문태

결정 내용 원안대로 24세대의 가입을 승인함.

제2호 안건 2020년 지원사업 선정의 건

제안 내용 2020년에 추진하는 지원사업 『실무자·활동가 귀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인 양성을 위한 교육농장 시범사업』에 대해 사무국장단, 회장단 회의를 통해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접수를 받은 결과 각각 3명과 3곳이 접수를 하였음.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결정 내용

① 『실무자·활동가 귀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3인에 대해 원안대로 선정함.

신청지역	성명	근무지	영농규모
충북남부권역	박준열	한살림사업연합	3,000평
충북북부연합회	신건준	한살림중주제천생협	2,000평
아산연합회	표희철	한살림서울생협	700평

② 『귀농인 양성을 위한 교육농장 시범사업』 신청지역 3곳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함.

신청지역	사업명	신청금액	지원금액
충북남부권역옥천공동체	옥천포도밭일꾼	1,000만원	500만원
경기권역	청년귀농자공동경작	500만원	500만원
경북중부권역 회양산공동체	어울려짓기	936만원	500만원

제3호 안건 정책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 내용 정책위원회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총 15명(광역 추천 9명, 부문 추천 3명, 사무처 추천 3명)을 요청하였으며, 추천된 인원에 대한 위원 위촉과 위원 임기(1년), 정책위원회가 활동할 주요 정책과제(공정한 생산 배정-약정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결정 내용 원안대로 승인함.

2020년 정책위원회 위원현황

구분	위원구성	
위원	지역	강원·경기(송두영), 충북(임종래), 충남(정천귀) 경북(김동연), 경남(이춘일), 전남(정필훈), 전북(조도운), 가공(지완선)
	부문	여성위원회(허은자), 청년위원회(이원직), 2030분과(이준규-괴산연합회)
	사무처	백기욱(가공), 김성태(아산), 곽현용(사무처)

제4호 안건 외식법인 한상 비용 지원 검토의 건

제안 내용 코로나 19 영향으로 30% 정도의 매출이 급감하여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3개월간의 적자 비용과 1/4분기 법인세, 외식법인 한상의 CS법인 지점으로 법인격 변경에 따른 세금을 외식법인 한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함.

결정 내용 원안대로 승인하며, 지원 예상 금액은 약 580만 원 정도임.

제5호 안건 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추가 검토 건

제안 내용

- 기금운영위원회를 생산안정기금위원회와 가격안정기금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한살림연합과 한살림사업연합이 각각 소관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생산안정기금은 생산자연합회가 담당하고 가격안정기금은 한살림사업연합이 담당하는 내용.
- 기금 조성고 관련하여 1인(생산조직 출하액의 0.1%와 소비조직은 이에 동일하게 조성)과 2인(생산조직은 출하액의 0.1%, 소비조직은 공급액의 0.1%), 기금이 보험의 성격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집행률과 금액을 조정하고 년 1회 기금총액 범위 내에서 정산 집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
- 미집행 금액의 일부를 청년생산자 육성지원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함.

결정 내용 [제4조(구성)]은 2인 “생산조직은 출하액의 0.1%, 소비조직은 공급액의 0.1%”로 조성하는 내용과 [제19조(집행방법) 4항] “기금의 미집행 금액의 일부를 청년생산자육성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산자연합회 의견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6호 안건 한살림추천 흥천매장 개설자금 지원 요청의 건

제안 내용 흥천연합회에서 한살림추천생협과의 생·소협동형매장 개설 자금 1억 3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농업살림기금위원회에서 매장 추진계획 및 자금 상환 계획(년 5천만 원씩 2년 내 상환)을 검토하여, 농업살림기금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1억 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결정 내용 원안대로 승인함.

한살림 과수 이상 저온 피해 급증 배, 사과, 복숭아꽃 냉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4월 5일, 6일 식목일 즈음에 최저 기온이 전국적으로 -2도 ~ -7도로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4월 중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들이 10일이나 발생하여, 과수 꽃들이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는 꽃이 피는 동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암술의 씨방이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됩니다. 씨방이 죽으면 수정 능력을 잃게 되어 과실을 맺지 못하고 수확량이 감소합니다. 개화 기간에 -1 ~ -2도의 저온에 30분 이상 노출이 되면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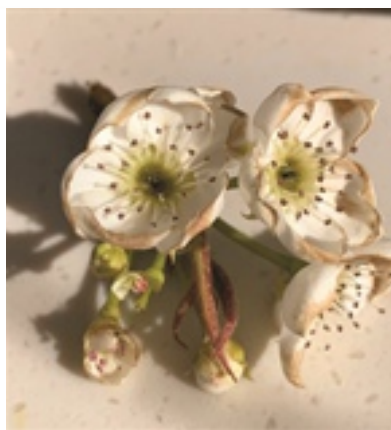
올해는 특이하게도 겨울철이 따뜻하여, 꽃들이 일주일 정도 일찍 피어 더욱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배, 사과, 복숭아, 감 등 주요 과수 물품들은 피해가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남부나 중부 지역 몇 군데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홍천의 배 생산 농가는 냉해로 배 꽃이 모두 얼어서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괴산지역의 배도 신고는 90% 이상 냉해를 입었고, 화산, 원황은 10% 정도 피해를 입어 인공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살림 영천 햇빛공동체 사과 농가는 부사 품종의 어미꽃(중심화¹⁾)이 거의 90%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미꽃은 좋은 사과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올해는 어미꽃이 거의 죽어 측화를 키워 사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측화를 키워 사과를 만들면 크기가 작은 사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하기는 어렵지만, 적과 시기를 최대한 늦춰 적절한 적과를 진행하고 늦게 피는 꽃들을 위해 인공 수분(기형과 방지)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수 꽃 피해가 발생한 곳은 지역 사무국장 및 지역 구매담당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생산자와 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 사과 중심화 - 사과꽃은 중심화 주위를 측화가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발달합니다. 사과꽃 개화의 순서도 대개는 중심화가 먼저 개화를 하고 뒤이어 액화가 개화를 합니다. 사과농가에서는 적화를 할 때 중심화를 남겨두고 측화를 제거합니다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의 열무, 열갈이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 제주도연합회 여성위원회가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이 미뤄지고 있어 급식 농가의 시름이 깊은 요즘입니다. 제주도연합회 여성위원회는 적체되고 있는 제주의 열무와 열갈이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 열무, 열갈이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16일(목) 오전 9시, 제주시 e제주영농조합법인 작업장에 제주도 연합회 여성생산자 10명과 한살림제주생협 식생활위원 5명이 모여, 열무 250kg, 열갈이 150kg를 다듬고, 씻고, 절이고, 양념하여 맛있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양념은 모두 한살림 물품과 친환경농산물로 만들었습니다. 담가진 김치는 총 450kg이 나왔는데, 2kg, 3kg, 5kg 단위로 포장해 행사 의 취지와 함께 한살림제주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기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생산과 소비는 하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생산자님, 소비자님 모두 힘 내시기 바랍니다.

생산 물품도 나누고 서로 삶도 함께 나누는 한살림 도농교류 첫 마음을 다시 생각한다.

이원직 생산자 <세종 고송공동체/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2019년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 지을 무렵 11월 8일 전남 청년생산자 가족들은 한살림서울 쌍문매장(한살림 1호 매장)에 모여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첫 출발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되돌아가자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도농교류라 하면 소비자 조합원들이 생산지 방문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생산자들이 각자 생산한 물품과 직접 가공한 가공품과 먹거리를 소개하고 나누는 오픈마켓 형태로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남지역 절임배추와 양념으로 즉석에서 버무려주는 곁절이 김치는 특히 소비자들에게 인기 최고였습니다. 지난 한살림서울 가을걷이 한마당 때도 즉석 곁절이 김치 판매로 모금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인지 청년생산자 회원의 독특한 행사로 자리매김되는듯해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비록 크고 귀하고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각자 생산한 물품을 손에 들고 소비자 조합원들을 찾아뵙고 서로 얼굴을 보며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물어보며 알아가는 과정들이 진정한 도농교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누고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공유하며 채워나가려는 움직임들을 청년생산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작은 발걸음들로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한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한살림 도농교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식상하다.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요구와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한살림 조합원 세대가 변하고 있고 다양한 세대와 함께 하는 도농교류 내용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첫 마음을 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도농교류를 하고자 하는가? 도농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곰곰히 생각해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청년위원회가 청년생산자 가족 한마당을 매년 8월에 모여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수확을 끝낸 후,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오픈마켓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소비자·생산자 서로가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직 생산자

이은정 생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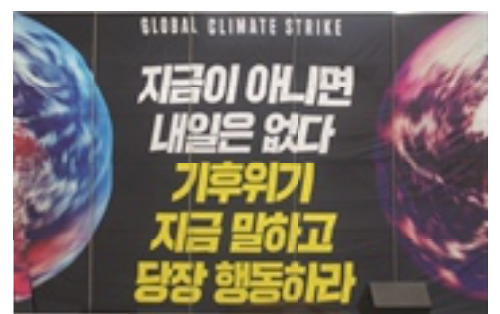
나부터 생활실천! 연대의 힘으로 정책과 제도 변화! 기후위기 한살림 생산자조직 대응 현황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가 화두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고 5월 6일부터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된다. 국가와 사회, 마을과 가족 공동체 생활체계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사회운영체계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전환의 시대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살림연합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부터 생활실천운동을 펼치며,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지난 4월 27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는 한살림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살림 소식지 632호 5페이지 참조)

생산자연합회도 지역생산조직과 함께 4-6월에 기후위기 대응으로 공동체별로 학습하고 생활실천수칙을 마련하여 6월 이사회에서 한살림 생산자 생활수칙을 선포할 예정이다. 5월 달은 생산자연합회는 이사회 회의에서 조천호 대기과학자 선생님을 모시고 '기후위기와 농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가질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창궐은 기후위기의 전초전이다. 지금 당장 우리 삶을 바꿔야 한다. 삶뿐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나부터 시작하자! 한살림이 앞장서자! 한국사회가 중심에 서자!
'삶의 전환' 그것은 역사의 흐름이자 필연이다.



한살림 5가지 생활실천운동

-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 국산제철 재료로 소박하게 먹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와 손수건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입니다
- 나와 지구를 위해 걷습니다
- 한 달에 하루 전깃불을 끄는 '하루 침포의 날'을 실천합니다